

식민지 시대의 도시간·직종간 비숙련 임금 격차*

차 명 수**

논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식민지기 8대 도시의 주요 비숙련 직종 실질 임금을 추계하고 임금 격차의 정도와 변화를 파악 분석하는 것이다. 임금이 높은 비숙련 직종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임금이 증가해서 도시 내 직종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던 반면 임금이 낮은 곳에서 보다 빠르게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베타 수렴)이 있었다. 초기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실질 임금 상승을 가속화했지만 소작지율은 실질 임금 상승을 저해했다. 베타 수렴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변화 및 공업화 정책 같은 충격 때문에 비숙련 명목 및 실질 임금의 도시간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시그마 수렴)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실질 임금은 증가했고 실질 임금이 정체한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었다.

핵심 주제어: 식민지 조선, 8대 도시, 비숙련 노동자, 명목 임금, 소비자 물가 지수, 실질 임금, 소득수준 수렴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1, N3, J3

투고 일자: 2010. 12. 28. 심사 및 수정 일자: 2011. 1. 7. 게재 확정 일자: 2011. 3. 8.

* 이 연구는 2007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KRF-2007-322-B00010) 과 2010년도 한국연구재단 (NRF-2010-32A-B00035) 의 지원을 받았다.

**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e-mail: mscha@ynu.ac.kr

I. 서 론

실질 임금은 생활수준의 변화를 보여 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한국경제사에서 식민지기의 실질 임금의 추세는 식민지기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식민지기에 일인당 생산이 증가했음을 주장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이것이 곧바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인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기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추이는 식민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물질적 삶이 나아지고 있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계층간 민족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尾高(1975)가 처음으로 실질 임금 추계를 발표한 이래 세 개의 추계가 추가되었는데 허수열(1981), Cha & Lee(2008), 김낙년·박기주(2010)가 그것이다.¹⁾

그런데 기존 연구가 제시한 식민지 시대의 실질 임금 추세는 상당히 다르다. 이 연구들은 모두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이하 『年報』)라는 동일한 자료를 사용했으므로 도출된 결론의 차이는 계산 또는 추정 방법차이에 기인한다. 만일 노동 시장이 잘 통합되어 있어서 부문간, 지역간 임금 격차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지역별 직종별 임금을 집계해서 도출한 전체 평균 임금과 그에 의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들이 상당히 다른 임금 증가율을 제시했다는 것은 지역간, 직종간에 상당한 임금 격차가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초점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전체 평균 임금을 추정하기 보다는 도시간 직종간 임금 수준과 추이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임금 격차에 대한 정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쓸모 있는 것이다. 첫째,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 사이에 발견되는 실질 임금 증가율을 둘러싼 이견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며 실질 임금 추세에 관해 보다 직관적이며 납득하기 쉬운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의 식민지기 경제사 연구가 전국적·거시적 추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직종간 도시간 임금 격차는 식민지기의 지역간 경제적 격차와 서로 다른 경제 부문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해서 알려 준다.²⁾

1) Cha & Lee(2008)는 이우연·차명수(2007)을 업데이트한 것이므로 이 논문의 논의에서는 전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주 3을 보라.

이 논문은 우선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제Ⅱ장). 제Ⅲ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시별, 직종별 명목 임금을 도출했는지를 설명하고 명목 임금 수준과 추세가 직종간에 그리고 도시간에 어떻게 달랐는지를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도시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추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제Ⅲ장에서 추계한 도시별 명목 임금을 제Ⅳ장에서 추계한 도시별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 실질 임금의 추세와 수준을 직종 간 및 도시 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발견된 사실들은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Ⅱ. 기존 연구의 검토와 문제 제기

『年報』 1910년판부터 1942년판까지 33개 년판에는 25개 도시에서의 51개 직종에 관한 임금 관측치 30,546개가 수록되어 있다. 1925년까지는 서울, 대구, 목포, 부산, 공주, 광주, 군산, 마산, 인천, 전주, 진주, 청주,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鏡城, 성진, 의주, 진남포, 춘천, 함흥, 해주, 나남의 임금이 조사되었지만, 1926년부터는 서울, 대구, 목포, 부산,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만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1936년부터 대전이 추가되었다. 『年報』의 임금 통계표에 등장하는 51개 직종 중 숙련과 비숙련 직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각각 숙련직은 35개, 비숙련직은 16개인데 조사 대상 직종 수는 1930년경부터 숙련직과 비숙련직 각각 5-6개 정도 감소했다. 따라서 『年報』에 제시된 임금 통계 중에는 식민지기 일부기간에 걸쳐서만 관측치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나 직종에 관한 것이 상당수 있다.

이를 이용한 최초의 연구는 尾高(1975)인데 이 연구는 7개 도시의 36개 직종을 선택하고 이를 6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 1910-38년의 실질임금을 추계했다. 이에 비해 허수열(1981)은 『年報』로부터 조선인 평균임금을 서울과 전국, 그리고 숙련과 비숙련으로 나누어 추계했는데 전국 임금계열을 작성하는 데 이용된 도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숙련임금에는 12개, 비숙련 임금에는 5개의 직종을 사용했음을

2) 중요한 예의 중 하나가 김낙년(2008)의 도별 GDP 추계 작업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국 평균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해서 도별 실질 산출을 구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간 물가 수준 격차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물가지수를 추계하는 작업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밝히고 있다. 이 두 연구는 모두 식민지기에 조선인 비숙련 실질 임금이 정체했다고 결론 짓고 있지만 추계 결과를 들여다 보면 차이가 있다. 허수열(1981)의 비숙련 실질 임금은 15%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음의 시간 추세를 따르고 있지만 尾高(1975)의 임금 계열 중 (비숙련 직종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농림수산업과 옥외 인부 실질 임금은 양의 시간 추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10%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尾高(1975)와 허수열(1981)은 추계 방법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年報』에 제시된 임금 통계 중 식민지기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서 결락 없이(또는 거의 결락 없이) 임금 관측치를 얻을 수 있는 직종과 도시의 임금을 선택해서 임금을 추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Cha & Lee(2008)는 尾高(1975)와 허수열(1981)이 다른 결과를 제시하게 된 배경으로 『年報』에 있는 임금통계 중 서로 다른 직종에 관한, 그리고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서로 다른 도시에서 관측된 임금 통계를 선택해서 추정해 준 데 있다고 보고 『年報』의 임금 통계를 남김없이 이용해서 임금을 추정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임금 추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판단 위에서 Cha & Lee(2008)는 『年報』에 제시된 비숙련 직종 조선인 남성 임금 관측치를 농어업, 공업토건업, 서비스의 3개 부분으로 분할한 뒤 이 세 부분 각각에 대해서 명목 임금을 로그를 씌운 값을 종속 변수, 연도 더미, 식사를 제공받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월급인지 일급인지 연급인지를 구분하는 더미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연도 더미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해 이 세 생산 부분의 임금시계열을 도출한 뒤 이의 가중 평균을 구해 조선인 남성 비숙련 노동자 명목 임금을 추정했다. 그리고 이 명목 임금을 허수열(1981) 및 김낙년·박기주(2009)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연결해서 도출한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누어 얻은 비숙련 실질 임금을 도출했는데 이 지수는 1910-42년간 연 0.8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

3) 이우연·차명수(2007)는 이렇게 추계한 비숙련 실질임금 증가율이 0.4%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는 오석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논문의 〈부표〉에 실린 명목 임금 추계치와 허수열(1981) 및 김낙년·박기주(2009)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해서 실질 임금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0.89%이며 이 증가율 추정치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헤도닉 회귀분석을 이용한 추계는 남북 전쟁 이전의 미국 임금을 추정하기 위해서 Margo(2000)가,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영국의 임금 시계열을 작성하기 위해서 Clark(2005)이, 그리고 中華民國期の 중국 임금을 추정하기 위해서 Yan(2007)이 사용한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김낙년·박기주(2010)은 『年報』의 임금 통계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서 경제 전체의 임금 추세를 추정했다. 이들은 1) 도시별 직종별 명목 임금 증가율을 이용해 라스파이레스와 파셰 연쇄 명목임금 지수를 구한 뒤 이의 기하 평균인 피셔 연쇄명목 임금 지수를 계산해서 명목 임금 증가율을 추정한 뒤, 2) 1930년의 도시별 직종별 임금의 가중평균을 취해 이 해의 명목 임금 수준을 계산하고, 3) 여기에다 처음에 구한 임금 증가율을 곱해 식민지기의 임금을 추계했다. 이 방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명목 임금 증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해 이상 연속해서 임금 관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年報』에 나온 임금수치의 13%에 달하는 시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명목 임금 관측치는 사용할 수 없다. 둘째는, 위의 두 번째 단계의 작업에서 직종별 가중치가 필요한데 가중치의 값이 임금 자료의 존재 상황에 따라 매년 변한다는 점이다.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추정한 결과 김낙년·박기주(2010)은 비숙련 실질 임금이 Cha & Lee(2008)의 추계치보다 느린 연 0.67%의 속도로 증가했다고 결론지었다.

〈표 1〉 기존 연구의 비교

	尾高煌之助(1975)	허수열(1981)	Cha & Lee(2008)	김낙년·박기주(2010)
자료	일부 이용	일부 이용	전체 이용	대부분 이용
자료추출 기준	결락이 없거나 적은 시계열을 이용	결락이 없거나 적은 시계열을 이용	전체를 이용했으므로 해당 없음	2년 이상 연속 관측되는 경우만 사용
사용 정보	임금 수준	임금 수준	임금 수준	임금 증가율
가중치	부문별로 임금을 제시했으므로 해당없음	부문별 노동자 분포를 반영하는 고정 가중치	부문별 노동자 분포를 반영하는 고정 가중치	관측치 분포를 반영하는 변화 가중치
실질임금증가율	0%	0%	0.89%	0.67%

주: 실질 임금 증가율은 추정된 실질 임금을 로그 변환해서 연도에 대해 회귀해서 추정했으며 5%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0%로 처리했음.

〈표 1〉은 지금까지 설명한 기존의 네 연구에서 사용한 추계 방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서 보여 준다. 이 표가 보여 주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결락이 적은 도시 - 즉 식민지기 전체 기간에 걸쳐 임금 조사가 이루어진 8대 도시 - 및 직종 임금을 추출해서 추계한 尾高(1975)와 허수열(1981)의 추계치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한

비숙련 실질임금 상승 추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年報』의 임금 통계를 모두 혹은 거의 모두 사용한 Cha & Lee (2008) 나 김낙년·박기주(2010)의 경우 유의미하면서 0.5%에서 1% 사이의 기울기를 가진 실질 임금 증가 추세를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작위 추출 표본의 경우 샘플 수가 늘어날수록 표본 오차가 감소하므로 작은 표본 보다는 큰 표본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가 우월하다. 그렇다면 많은 관측치에 근거를 둔 Cha & Lee (2008) 나 김낙년·박기주(2010)의 추계가 尾高(1975)와 허수열(1981)의 추계에 비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Cha & Lee (2008)도 김낙년·박기주(2010)도 잘 인식하고 있듯이 『年報』의 임금 통계는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1926년부터 조사 대상 도시수가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1930년경부터는 조사 대상 직종 수가 줄었는데 이에 따라 중소 도시와 주변적인 직종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만일 식민지기 후기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도시와 주변적인 직종의 임금 수준과 추세가 대도시와 주요 직종의 그것과 다르다면 『年報』의 임금 데이터를 전부 혹은 거의 전부 이용해서 추계한 결과는 전 시기에 걸쳐 임금 관측치를 얻을 수 있는 직종과 도시를 추려서 추계한 결과에 비해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김낙년·박기주(2010)는 Cha & Lee (2008)의 회귀 방정식에 직종과 도시를 구별하는 더미가 빠져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데 『年報』 임금 데이터의 직종간 도시간 구성 변화에 따른 바이어스를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합당한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도 김낙년·박기주(2010)은 (직종별 도시별 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年報』가 제공하는 임금 데이터의 지역별, 직종별 구성이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를 가중치로 사용해서 전체 임금 증가율을 계산함으로써 『年報』 임금 데이터의 직종간 도시간 구성 변화가 임금 추세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했다.

Ⅲ. 도시별·직종별 명목 임금

만일 도시 사이에 그리고 직종 사이에 임금 수준이나 추세 차이가 미미하다면 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양이 많거나, 어떤 직종이나 도시를 선택해서 평균 임금을 추

정했건, 또 어떤 가중치를 사용했건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커다란 추정결과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식민지기 임금의 수준과 구조에 관해서 상당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도시간, 직종간에 상당한 임금 격차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 준다. 이 장에서는 도시별, 직종별로 임금 시계열을 작성하고 도시간, 직종간 어느 정도, 어떤 구조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격차들은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관한 추론이 가능하며, 이런 추론을 바탕으로 식민지 조선의 임금 수준과 구조의 실태에 관한 인식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 아울러 직종간 및 도시간 임금 격차의 변화는 전국 수준의 데이터들이 보여 줄 수 없는 식민지기 노동 시장 발전과 경제 성장의 실상을 드러낼 것이다.

『年報』 임금 자료의 성격과 구조에 관해서는 김낙년·박기주(2010)이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도시별, 직종별 임금 시계열을 이끌어냈는지 만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우선 도시를 보면 전체 임금 데이터 중에서 1926년 이후에도 임금 조사가 계속된 8대 도시 - 서울, 목포, 부산, 대구, 원산, 청진, 신의주, 평양 - 의 임금 통계만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직종을 보면 1930년경 이후에도 조사가 계속되는 40개에 가까운 직종 중에서 8대 도시 모두 또는 대부분에 대해서 시계열이 비교적 충실히 정비되어 있는 8개 비숙련 직종을 선택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남자 농업 노동자(農作夫), 어부, 하녀, 일반 노동자(平人足), 지계꾼(擔軍), 하역 노동자(仲仕), 토공(土方), 연공(薦人足)이다.⁴⁾ 여기서 숙련 비숙련 직종 구분은 필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조사월보 1930년 5월 및 6월호, 1939년 2월호에 따른 것인데 이는 허수열(1981) 이후의 기존 연구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8개 직종 중 일부 직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관측치 결락으로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렵거나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4) 일본어 平人足(히라닌소쿠)에서 人足이란 노동자를 의미하며 平은 “일반적인,” 또는 “보통”이라는 뜻이므로 일반 노동자로 번역했다. 仲仕(나카시)는 하역 작업을 하는 인부를, 薦人足(도비닌소쿠)은 주로 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제외된 비숙련 직종은 여자 농업 노동자, 식목직, 갱부, 세탁직, 미도, 연초제조직, 두사, 상점 용인, 인력거부, 수레꾼, 남자 하인(下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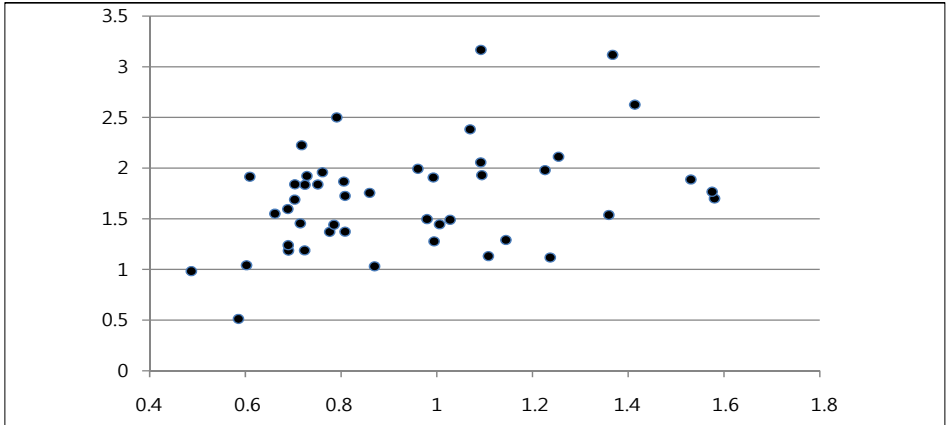
〈표 2〉 직종별 평균 명목 임금, 서울, 1913-35 (日/円)

농업 노동자	하녀	일반 노동자	하역 노동자	지계꾼	토공	연공
0.72	0.25	0.81	1.25	0.81	1.09	1.58

자료: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주: 하녀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았다.

이 직종들은 모두 통상 비숙련 직종으로 분류되지만 〈표 1〉은 직종 간에 상당한 명목 임금 격차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중 가장 낮은 것이 하녀 임금인데 하녀는 하루 25전의 화폐 임금 이외에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이는 다른 직종과 비교하기 어렵다. 이를 제외한 여섯 직종 중 농업 노동자, 일반 노동자, 지계꾼의 임금은 1엔 미만이지만 중사, 토공, 연공의 임금은 1엔이 넘었고 연공의 일급은 1.58 엔으로 농업 노동자 일급 0.72엔의 2배를 넘었는데 이 같은 임금 격차는 비숙련과 숙련으로 분류되는 직종 간의 임금 격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허수열(1981: 232, 〈그림 2〉)). 그리고 남자 농업 노동자에 비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연공의 연 노동일 수가 더 많았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 두 직종 사이의 임금 격차는 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에 제시된 것은 서울의 명목 임금이지만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직종간 임금 격차가 있었다. 비숙련 직종 간 임금 수준 격차가 있었다는 것은 직종간 노동 강도, 요구되는 능력 등이 달랐음을 시사한다.

〈그림 1〉 평균 임금 수준과 1932/35년 임금에 대한 1913/6과 임금의 비율



자료: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주: 가로축은 1913-35년간 평균 임금 수준을, 세로축은 1932/35년 임금에 대한 1913/6과 임금의 비율을 나타냄; 〈표 1〉의 직종 중 식사를 별도로 지급 받는 하녀 임금은 제외되었습.

〈그림 1〉은 8대 도시에서 (가로축에 표시된) 식민지기의 평균 명목 임금 수준과 (세로축에 표시된) 1932/35년 임금에 대한 1913/6과 임금의 비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음을 말해 준다. 즉 명목 임금이 낮은 직종일수록 식민지기에 임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루 임금이 평균 0.5엔 정도였던 직종에서는 이 20년간 명목 임금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하루 임금이 평균 1.5엔 정도였던 직종에서는 2~3배 정도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세거나 특수한 능력을 요구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명목 임금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점점 더 빠른 명목 소득 증가의 혜택을 누렸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반 노동자나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운반하는 지게꾼의 명목 임금은 느리게 증가하거나 정체했지만 비교적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하역부, (숙련이나 기술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고공 작업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고공 작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鳶工의 명목 소득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식민지기에는 서로 다른 계급 사이에서뿐 아니라, 그리고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사이에서뿐 아니라, 비숙련 노동자 계층 내부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했음을 말해 준다. 직종간 임금 격차의 확대는 도시 별로 직종간 명목 임금 변이계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직종의 임금을 선정해서 평균 임금을 추정하느냐에 따라 평균 비숙련 임금 증가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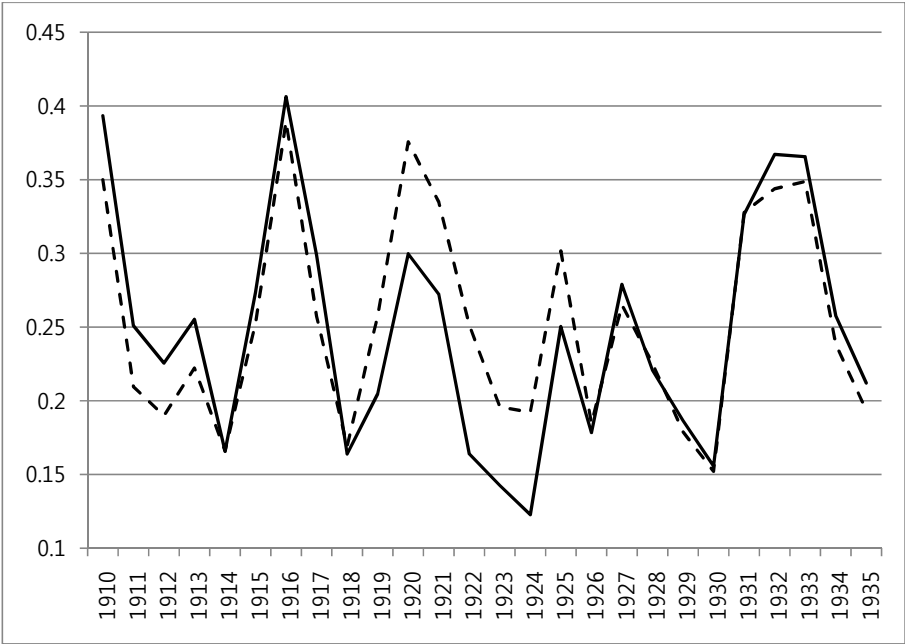
직종간 임금 격차가 대부분의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임금의 도시간 격차는 좁혀지거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림 2〉는 직종별로 명목 임금의 도시간 변이계수를 보여 주는데 지게꾼과 하역 노동자의 경우 변이계수가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다른 직종에서는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았다.⁶⁾ 임금의 도시간 격차가 좁혀지거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전국 평균 비숙련 임금을 추계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를 선택하느냐는 어떤 직종을 선택하느냐에 비해 평균 임금의 증가율 추정 결과에는 영향을 덜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5) 변이 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구해지며 지역간 가격 또는 임금 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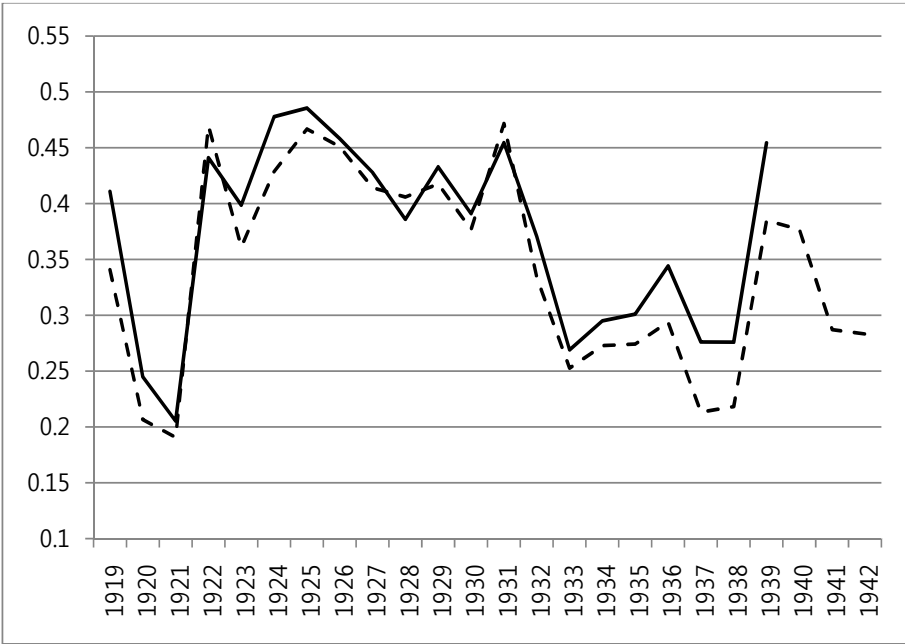
6) Cha (2000, p. 90)은 1915~37년간의 서울, 대구, 부산, 목포의 하남 실질 임금 변이계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림 2-B〉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2〉 직종별 8대 도시 임금 변이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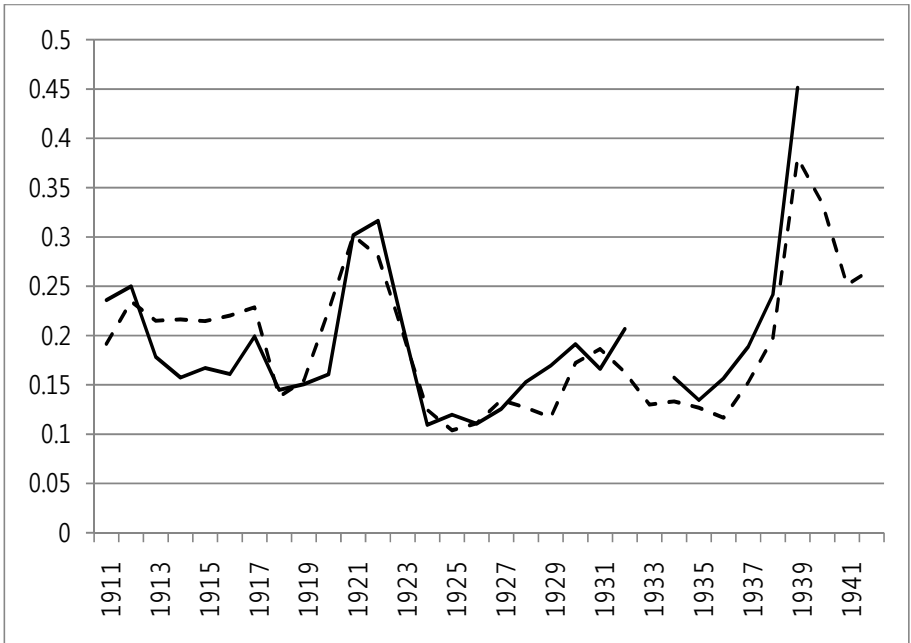
A. 농업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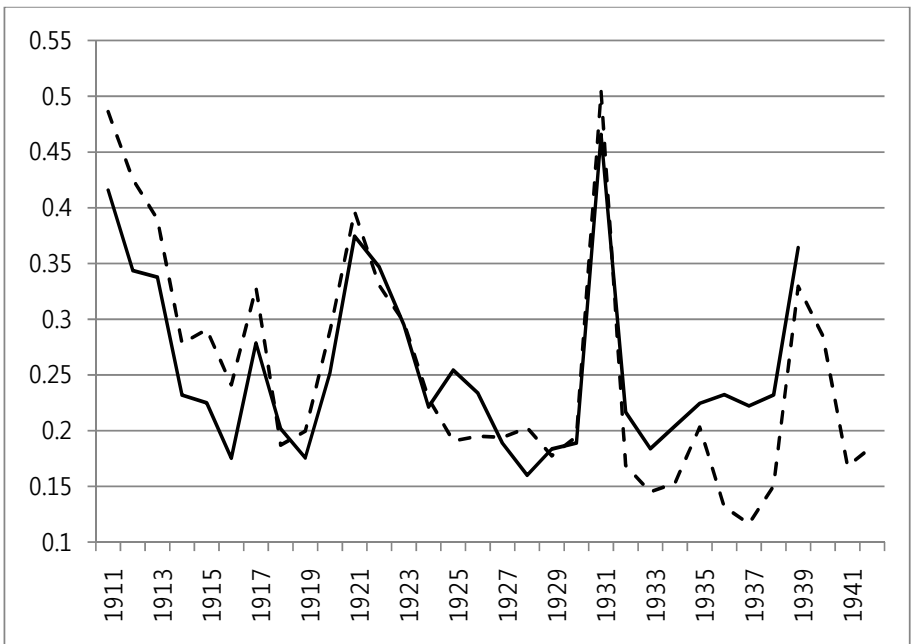
B. 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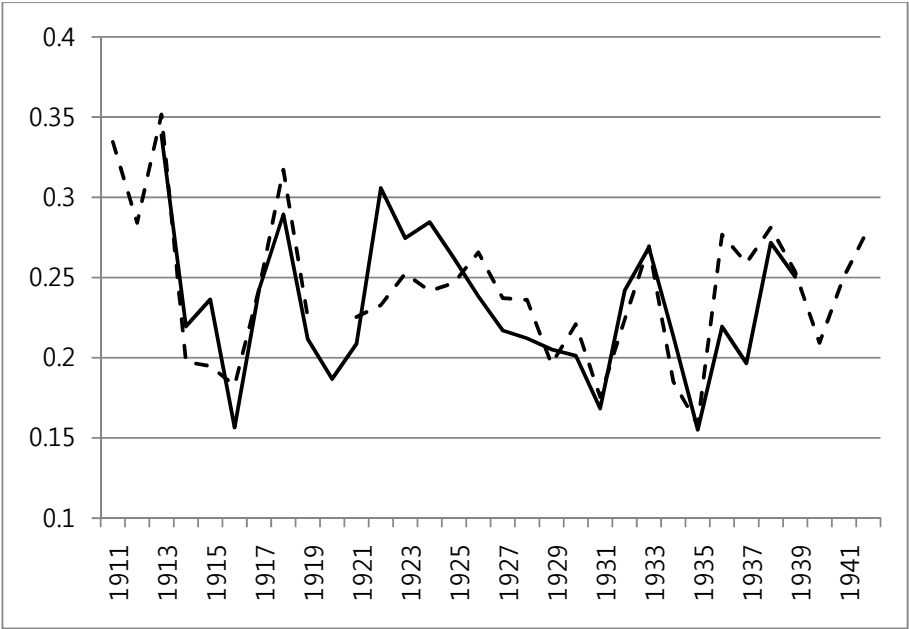
C. 잡역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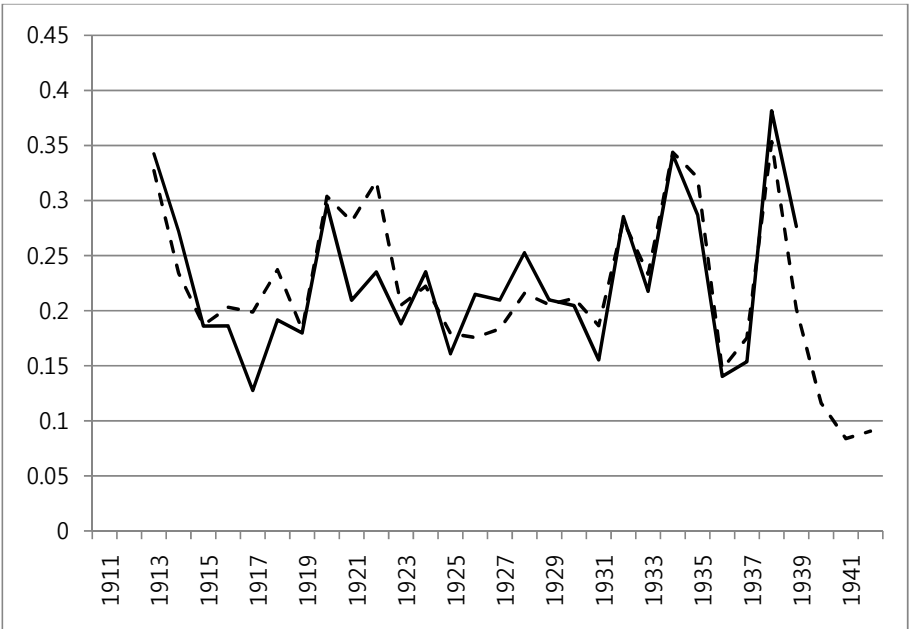
D. 지게꾼



E. 중사



F. 연공



주: 명목 임금과 실질 변이 계수는 각각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 연공 임금의 변이계수는 서울, 대구, 청진, 신의주, 평양 임금만을 가지고 계산했음.

VI. 도시별 생계비 지수

도시 간 또는 직종간 임금 격차의 정도와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별 직종별 명목 임금이 아니라 실질 임금을 비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별 생계비 지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8대 도시에서 관측되고 『年報』의 농업 및 물가편에 수록된 17개의 주요 소비재 가격, 그리고 『年報』의 토지편에 수록된 전국 각지의 택지 임대가격을 이용해서 8대 도시 각각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추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17개 주요 소비재란 쌀, 콩, 보리, 밀, 조, 된장, 소금, 간장, 설탕, 맥주, 청주, 쇠고기, 달걀, 가쓰오부시, 면직물, 땀나무, 석탄을 가리킨다. 가쓰오부시는 식민지기에 조선인들이 보편적으로 소비한 품목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어류의 경우 가격 관측치 결락이 많고 가쓰오부시와 다른 다른 어류 가격 차이의 비율이 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쓰오부시 가격으로 어류 가격을 대표시키기로 한 것이다.

『年報』에는 곡물 가격, 주류 가격, 그리고 면직물의 경우 가격과 아울러 품질, 원산지, 종류, 브랜드 등에 관한 정보가 같이 제공되어 있으므로 헤도닉 회귀분석을 통해 일정한 품질, 원산지, 종류, 브랜드의 품목의 가격 시계열을 추정해서 사용했다. 이외의 품목의 가격은 『年報』에 제시된 그대로를 가져다 사용하거나 아니면 평균을 취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보완과 변형을 가한 뒤에 사용했다.

『年報』의 토지편에는 전국 각지에서 1913-43년간 관측된 2,310 건의 100평 당 택지 임대료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관측 대상이 된 택지의 상세한 주소가 명기되어 있으며 그 장소가 郡부인지, 市부인지, 그리고 시가지세령 시행지인지, 지세령 시행지인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로부터 8대 도시 각각의 택지 임대 시계열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 택지 임대 가격 자료를 도별로 분할하고 8대 도시가 소속된 도 각각에 대해서 1) 연도, 2) 택지 등급 (상, 중, 하), 3) 택지가 소재한 군 또는 시, 4) 택지가 소재한 지역의 성격 (시부인지, 군부인지, 시가지세령시행지인지, 지세령시행지인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들을 이용한 헤도닉 회귀분석을 시행한 뒤 추정된 더미 변수의 계수를 이용해 8대 도시 각각에서의 택지 임대료를 계산했다.⁷⁾

7) 이 회귀식은 서로 한 道에 속하는 서로 다른 군 사이의 택지 임대 가격 비율이 1913-43년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성립한다. 그런데 이 가정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추정된 도시 j 에서 t 해에 관측된 소비 품목 i 의 가격(P_{ijt})를 다음 식 (1)에 대입해서 도시 j 에서 t 해의 소비자 물가수준(P_{jt})을 기하 가중평균으로 구했으며 다른 해의 소비자 물가 수준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다.⁸⁾

$$P_{jt} = \prod_i P_{ijt}^{\delta_i} \qua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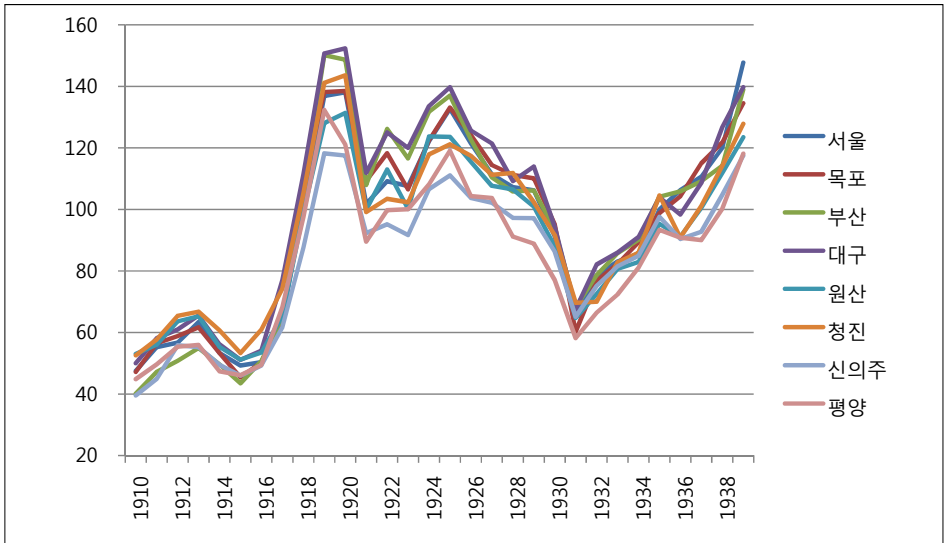
이 식에서 δ_i 는 소비 품목 i 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이는 허수열(1981)이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적용한 가중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 가격을 추계한 소비재들에 허수열(1981)이 부여한 가중치들의 합은 0.81으로 허수열의 품목별 가중치를 0.81로 나누어 구한 (따라서 합하면) 1이 되는 새로운 가중치를 도출해서 적용했다. 식 (2)에서 w_i 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t 가 붙어 있지 않은데 이는 이 논문에서 계산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고정 가중치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주익중(2006)에 따르면 식민지 시대에 일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엥겔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해서 값이 달라지는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고정 가중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식민지기에 노동자들의 소비 바스켓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알려주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⁹⁾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도시 인근 지역의 임대가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군 (또는 시)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와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의 교차항을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이런 추정을 하기에는 관측치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임대가 자료를 도별로 나누어 분석했으므로 이 방법을 통해 식민지기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경기도와 같이 도시화가 많이 진전된 지역과 전라남도처럼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컸던 지역 사이의 임대가 추세가 어떻게 달랐는지는 파악할 수 있다.

8) 물가 수준을 기하 가중평균으로 구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은 보론을 참조하라.

9) 주익중(2006, p.206, <그림 9-5>)은 8대 비목간 소비 지출 구성이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여주는 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개별 소비재가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이를 비목간 소비 지출 구성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림 3〉 도시별 생계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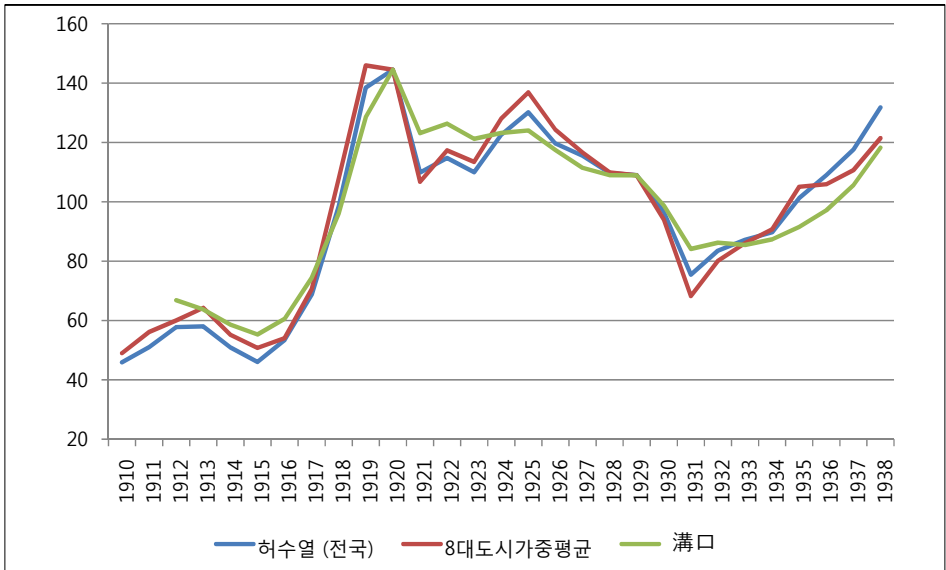
자료: 본문 참조.

〈그림 3〉은 이렇게 구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여주는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도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해에 이 도시의 소비자 물가수준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알 수 있다.¹⁰⁾ 〈부표〉에 제시된 8대 도시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이계수를 계산해 보면 식민지기를 통해서 도시간 소비자 물가 수준 격차가 추세적으로 감소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식민지기에 쌀, 쇠고기, 설탕, 된장, 소금 가격 그리고 택지 임대료의 도시간 격차가 줄어들었고 여타 소비 품목 가격의 도시간 격차는 벌어지지도 좁혀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비자 물가의 도시간 수렴은 식민지기 초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쌌던 북한 지역 도시들에서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았던 남한도시들에 비해 소비자 물가가 천천히 증가한 결과이다. 이를 잘

10) 박기주·김낙년(2010)이 추계한 8대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이하 CPI)는 1936년을 100으로 한 지수로서 도시 사이의 물가 증가율 차이만을 보여주며 어떤 해에 도시 간에 물가 수준 격차(이하 RPP) 차이가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에 비해 〈그림 3〉에 제시된 지수는 증가율과 수준 차이를 모두 보여준다. 박기주·김낙년(2010)의 CPI는 김낙년·박기주(2010)의 명목 임금 추정 방법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 계산된 것인데 이 방법에서 사용된 물가(또는 임금) 수준 결정식과 물가(또는 임금) 증가율 결정식 사이에 수학적 관련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CPI와 RPP간의 일관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상세한 내용은 보론을 보라.

보여 주는 것이 1910년대 초에 소비자 물가 수준이 가장 높았던 원산이 1930년대 말이 되면 물가 수준 순위 6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서울의 물가 수준순위가 같은 기간 동안 4~5위에서 1위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식민지기 초에 높은 운송비 때문에 북한 지역의 물가가 비쌌지만 철도와 같은 근대적 운송 시설의 혜택이 확대 되고 운송비가 싸졌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허수열(1981)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교



주: 세 소비자 물가지수의 1920년 값을 일치시켰음.

자료: 『日帝統治下における朝鮮の雇用と賃金』(一橋大學經濟研究所加工統計シリーズ 7); 허수열 (1981).

〈그림 4〉는 이 장에서 추정한 도시별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가중 평균을 溝口敏行・梅村又次編(1998) 및 허수열(1981)의 추계와 비교해서 보여준다. 도시별 물가지수의 가중 평균을 도출하는 데 사용된 가중치는 1930년의 8대 도시 인구 합계에서 차지하는 각 도시의 비중이며 가중평균의 1920년 값이 허수열(1981)의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수준과 같아지도록 조정했다. 두 물가 지수는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따르고 있으나 1919년까지는 이 논문에서 추계한 지수가 허수열(1981)의 지수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는 데 비해 1920년 이후에는 이 논문의 추계가 허수열(1981)의

추계를 상회하는 시기도, 또 그 반대의 시기도 있다. 그 이유는 통계연보에 제시된 가격이 1919년까지는 도매 가격이며 1920년부터 소매 가격인데 허수열(1981)은 1919년까지의 도매가격을 소매 가격으로 조정하지 않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박이택(2006)에 제시된 1940년의 마크 업 비율을 적용해서 1919년까지의 도매 가격을 소매 가격으로 전환시킨 뒤 소비자 물가지수를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溝口敏行·梅村又次編(1998)의 추계는 이 논문의 추계 그리고 허수열(1981)의 추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추세를 따르고 있는데 변동성이 다소 약하다.

V. 직종별·도시별 실질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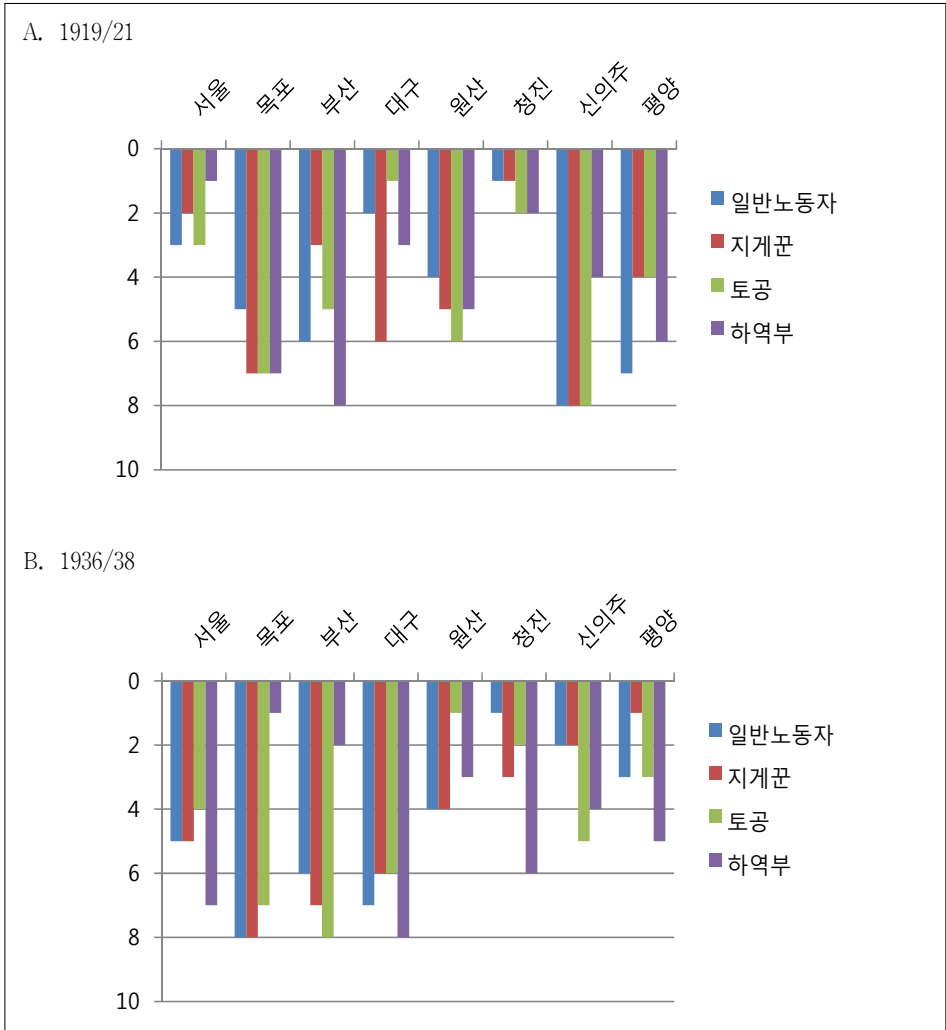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제Ⅲ장에서 구한 명목 임금을 제Ⅳ장에서 추계한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직종별, 도시별 실질 임금 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실질 임금 지수는 각 도시의 실질 임금 수준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도시 사이에 실질 임금 수준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도시간 실질 임금 격차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알려 준다.

우선 각 도시의 업종별 명목 임금을 각 도시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면 각 도시의 업종별 실질임금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업종별로 8대 도시 실질 임금 변이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보여 주는 것이 앞의 〈그림 2〉의 실선이다. 실선의 추이는 같은 평면 위에 점선으로 표시된 8대 도시간 명목 임금 변이계수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지계꾼과 하역 노동자의 경우 실질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다른 직종에서는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았다.

〈그림 5〉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8개 비숙련 직종 중 임금 시계열에 결락이 비교적 적은 4개 직종 - 일반노동자, 지계꾼, 토공, 하역부 - 각각에서의 실질 임금 수준의 순위를 보여 준다. 우선 패널 A를 보면 식민지 초기 (1919/21)에는 실질 임금 수준이 서울, 대구, 청진에서 비교적 높았으며 목포, 신의주, 평양의 비교적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패널 B는 식민지 후기 (1936/38)가 되어 도시 간 실질 임금 순위가 상당히 바뀌었음을 알려 준다. 초기에는 저임금 지역이었던 신의주와 평양이 고임금 지역으로 바뀐 데 비해 서울과 대구는 저임금 지역으로 바뀌었으며 부산의 순위도 하락했다. 식민지기 전 기간을 통해 목포는 저임금 지역이었던 데 비해 청진의 노동자들은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누렸다. 이 같은 변화의 결과 남

한은 저임금 북한은 고임금 지역으로 바뀌어 갔는데 이는 북한에서 남한에 비해 실질 임금 증가 속도 및 일인당 생산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정합적이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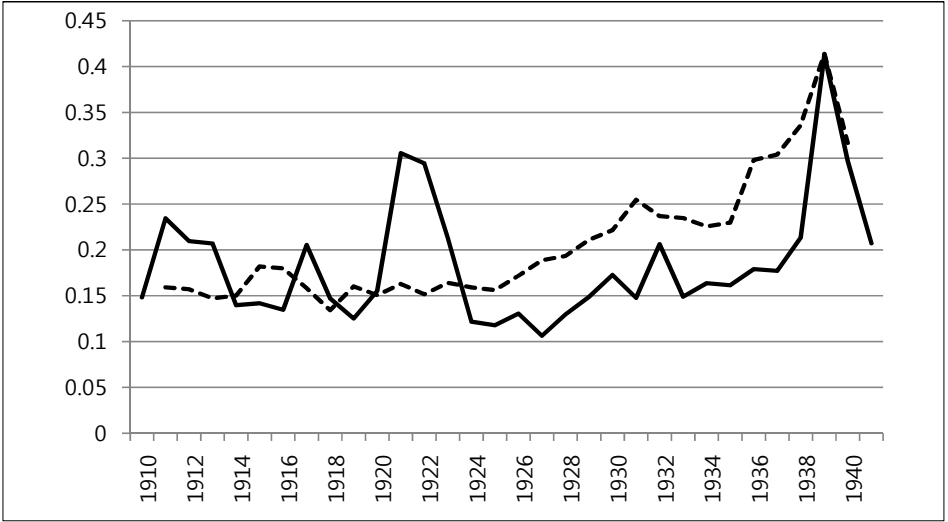
〈그림 5〉 8대 도시 실질 임금 순위



주: 1과 8은 각각 8대 도시 중에서 실질 임금 수준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도시를 나타냄.
자료: 본문 참조.

11) Cha & Lee(2008)와 Cha & Kim(2010)를 보라.

〈그림 6〉 비숙련 실질 임금 도시간 변이 계수



주: 실선은 도시 비숙련 실질 임금의 8대 도시간 변이계수, 점선은 일인당 실질 생산의 13도간 변이계수를 나타냄; 도시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없는 1939~41년의 실질 임금은 김낙년·박기주(2007)의 전국 소비자 물가를 모든 도시에 적용해서 계산했음.

자료: 본문 참조; 김낙년(2007).

〈그림 6〉의 실선은 비숙련 직종 실질 임금의 가중평균을 내어 계산한 8대 도시의 비숙련 임금 변이계수의 추이를 보여 준다. 8개 비숙련 직종 중 하녀, 남자 농업 노동자, 연공, 어부의 임금은 결락이 많으므로 이를 외삽이나 내삽에 의해 매우지 않으면 도시별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비교적 충실한 시계열을 얻을 수 있는 (〈그림 5〉에서 사용한) 4개 직종 - 일반 노동자, 토공, 하역부, 지게꾼 - 임금의 가중 평균을 구해 도시별 평균 비숙련 임금을 도출했다. 이 4개 직종은 허수열(1981)이 사용한 5개 비숙련 직종 중 보통 인부, 토공, 선하 운반부, 지게꾼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허수열(1981: 229)이 이 직종들에 부여한 가중치들을 이 가중치들의 합으로 나눈 값을 가중치로 사용했다. 여기서 제외된 직종은 薦人足, 즉 연공인데 허수열(1981)은 이 직종에 0.95%라는 아주 작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림 6〉의 실선은 비숙련 실질 임금의 도시간 격차가 1920년대 중엽까지는 서서히 좁혀지는 추세를 따르다가 이후 벌어졌음을 알려 준다. 관측치 결락 때문에 제외된 4개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며 또 이 직종 임금의 도시간 변이계수

는 정제했으므로 이 도시들을 포함시켜서 비숙련 실질 임금 변이 계수를 계산하더라도 <그림 6>의 실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에 점선으로 제시된 것은 김낙년(2007)이 추계한 도별 생산과 인구를 이용해 구한 일인당 생산의 13도 간 변이계수 추이를 보여 준다. 이는 1925년경까지 정제하다가 이후 증가했는데 이 같은 추이는 비숙련 실질 임금의 도시간 변이 계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식민지 조선의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서는 생활수준의 “시그마 수렴(σ -convergence)”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표 3> 베타 수렴 회귀식 추정 결과

	계수추정치	t-값
$\ln(w_{1919/21})$	-0.05261	-6.29031
취학율	0.097453	2.725086
소작지율	-0.01655	-1.86894
토공	-0.02775	-5.51855
지개꾼	-0.0439	-7.79289
하역부	-0.01269	-2.59968
일반노동자	-0.0403	-7.01258
상수항	0.097923	5.222746
관측치 수	40	
R-squared	0.76	
Durbin-Watson	2.36	

주: 2단계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 종속변수는 1919/21년에서 1936/8년 간의 실질 임금 증가율이며 취학율과 소작지율은 각 도시가 소속된 道의 1918년 값.

그러나 식민지기에는 생활수준의 도시간 조건부 베타 수렴(conditional β -convergence) - 즉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조건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에서 생활수준이 더 빠르게 향상되는 현상 - 은 진행되고 있었다.¹²⁾ 이를 보여 주는 것이 <표 3>의 회귀 결과인데 종속 변수는 8대 도시에서 관측된 5개 비숙련 직종 실질 임금의 1919/21년에서 1936/8년 간 증

12) Collins(1999)는 1874-1905년간 인도 6개 직종 각각에 대해서 실질 임금 증가율을 초기 임금 수준을 로그 변환한 값과 識字率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초기 실질 임금 수준의 계수 추정치로서 -0.01에서 -0.02 사이의 값을 얻었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베타 수렴이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을이며, 설명 변수는 1919/21년의 실질 임금 수준에 로그를 취한 값 ($\ln(w_{1919/21})$), 취학률, 그리고 소작지율이다. 만일 관측 오차로 인해 초기의 임금 수준($\ln(w_{1919/21})$)이 과소 평가 되었다면 이는 임금 증가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따라서 $\ln(w_{1919/21})$ 이 계수 추정치가 과대평가되도록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바이어스를 피하기 위해 2단계 최소자승 추계(2SLS)를 실시했으며 여기서 사용한 도구 변수는 ($\ln(w_{1916/18})$)이다. 초기를 1919/21년이라는 다소 늦은 시기로 잡은 것은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끝나고 나서야 소작지율이나 취학률 같은 통제 변수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관측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기를 1919/21년으로 설정하면 <그림 6>과 <그림 7>에서 사용한 4개 직종 외에도 (1910년대 관측치 결락이 많은) 연공 임금을 추가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질 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1936/38년을 종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2차대전의 전쟁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의 첫 번째 행에 제시된 $\ln(w_{1919/21})$ 의 계수 추정치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값 (-0.05261)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초기의 실질 임금 수준이 이후 20년간의 실질 임금 상승 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 즉 초기의 실질 임금이 낮을수록 이후 20년간 실질 임금이 빠르게 증가했음을 - 말해준다.¹³⁾ 8% 수준에서 유의미한 소작지율의 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수 추정치도 모두 1%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납득할 수 있는 부호를 가지고 있다. 즉 높은 취학율은 均齊 상태(steady state)의 생활수준을 상승시키고 따라서 초기와 균제 상태의 생활수준 사이의 거리를 벌림으로 생활수준 증가율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음의 값을 가진 소작지율 추정 계수는 식민지 조선에서 소작지율 높을수록 조출산율이 높다 - 따라서 인구 증가율이 빨라진다 - 는 추정 결과와 정합적이다.¹⁴⁾

베타 수렴은 시그마 수렴 - 즉 지역간 생활 수준 격차의 축소 - 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지만 외생적 충격은 지역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

13) 관측 오차로 인해 초기의 임금 수준($\ln(w_{1919/21})$)이 과소 평가되었다면 이는 임금 증가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따라서 ($\ln(w_{1919/21})$)이 계수 추정치가 과대평가되도록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바이어스를 피하기 위해 2단계 최소자승 추계(2SLS)를 실시했으며 여기서 사용한 도구 변수는 $\ln(w_{1916/18})$ 이다.

14) Cha (2007: 18)를 보라. De la Croix and Doepke (2003)는 경제적 불평등이 출산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 15) 가령 농업 비중이 큰 경제에서 지역적 기후 충격은 지역간 생산성 격차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전국적 기후 충격이라 하더라도 지역간 농산물 생산 구조나 산업 구조가 다른 경우 그 영향은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기후 충격은 지역간 실질 임금 격차가 벌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6>의 실질 임금 변이 계수(실선)를 보면 변이 계수가 상승했던 시기는 식민지기에 외생적 충격이 발생했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변이계수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1919-21년간은 일차대전 후 세계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 폭락이라는 충격이 발생한 시기였다. 둘째, 1920년대 중엽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던 변이 계수는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에 상승 추세로 돌아 섰는데 이 시기는 세계 농업 공황기에 해당한다. 일차 대전 직후와 농업 공황기의 농업 교역 조건 악화가 산업 구조가 다른 서로 다른 지역에 미친 영향은 달랐고 따라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 초 이후에도 변이계수는 계속 상승했는데 이는 일본의 공업화 정책 시행에 따라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을 중심으로 한 자본 축적은 북한 지역 임금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시켜 지역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켰을 것이다.

재화 시장이 통합되어 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관측된 동일한 재화 가격 간의 가격 격차가 추세적으로 좁혀져 가는지를 보는 것이며 이 때 가격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변이 계수가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관측된 임금을 가지고 계산한 변이 계수의 추이는 전국적 노동 시장이 형성되어 가는지 여부를 보이는 지표로 드물지 않게 사용된다. 16)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변이 계수의 시간 추세만을 보고 노동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추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나라 안에서 임금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벽 때문에 노동력 이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임금 격차는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간 저축율이 같다면(일인당 자본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유한 지역에 비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은 가난한 지역에서는 생활수준이 더 빨리 향상되는 경향(즉 베타 수렴)이 나타날 것이며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15) 베타 수렴과 시그마 수렴에 관해서는 Barro and Sala-i-Martin(2004, 462-3)을 보라.

16) 임금 변이계수를 노동 시장 통합 진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연구의 예로서는 Boyer and Hatton(1994), Collins(1999)와 Cha(2000)가 있다.

이것이 시그마 수렴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가난한 지역으로부터 잘 사는 지역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일어난다면 - 즉 노동 시장 통합이 진전된다면 - 변이 계수는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베타 수렴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간 노동력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더라도 커다란 외생적 충격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 때문에 변이 계수는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재화 시장과는 달리 노동 시장의 경우 임금 변이 계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 것만을 근거로 통합된 노동 시장이 등장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말해 준다.

앞서 <그림 2>에서 본 것처럼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계꾼과 하역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지역간 임금 격차가 좁혀지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변이 계수 추이 차이는 지계꾼과 하역 노동자 시장 만이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갔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물건을 나르는 직종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특정 지역 또는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idiosyncratic shocks)의 영향을 적게 받았음 - 반대로 전국적 충격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을 - 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8 대 도시 중 서울, 평양, 대구를 제외한 5개 도시는 항구이며 서울과 평양은 커다란 하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항구나 나름 없는 도시이며 대구만이 엄밀한 의미의 내륙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항구 도시의 지계꾼이나 하역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역 및 운반업 경기 에 따라 좌우되는데 어떤 항구 도시를 경유하는 재화는 그 도시 또는 그 도시가 속한 도에서 생산된 재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항구 도시의 하역 운반업 경기는 그 도시나 그 도시가 속한 도의 산출량뿐 아니라 국내 총생산에 의해 상당히 좌우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항구 도시의 운반 관련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지역적 충격(regional shocks)의 영향을 덜 받고 전국적 충격의 영향을 더 받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3>에는 기준이 되는 연공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직종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아울러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¹⁷⁾ 이는 5개 직종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았던 연공에 비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4개 직종에서는 실질 임금 증가율이 느렸음을 말한다. 이 4개 직종 더미 중 하역부 더미의 계수 추정치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토공 더미의 계수 추정치가 다음

17) 예를 들어 <표 3>에서 토공은 토공인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를 가리킨다.

으로 크고 지게꾼과 일반 노동자 더미의 계수 추정치는 가장 작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미미하다. 이 같은 순위는 <표 1>에서 본 평균 임금 수준의 순위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서 소득이 낮은 노동자들일수록 소득 증가 속도가 느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표 4> 실질 임금 증가율

	서울	목포	부산	대구	원산	청진	신의주	평양
하녀	3.8%***	0%	2.3%**	2.9%***	3.6%***	0%	0%	1.2%**
일반 노동자	0%	0.9%***	0%	0.8%**	0%	0%	1.1%**	1.2%***
남자 농업 노동자	1.1%**	0%	0%	0%	0%	n. a.	-3.4%***	0%
토공	0%	0%	0%	1.0%*	2.1%***	1.0%**	1.8%**	1.7***
지게꾼	0	0%	1.1%**	0%	0%	0%	0%	1.4%***
하역부	0%	0.9%**	1.7%***	1.1%*	0%	0%	1.4%***	1.1%**
鷹工	0.9%**	0%	1.4%	2.1%***	1.6%***	2.5%***	2.6%***	1.4%*
어부	1.4%***	0%	0%	n. a.	3.4%***	0.9%	3.5%***	0%

주: 증가율은 실질 임금을 로그 변환해서 상수항과 연도에 대해 회귀해서 구한 선형 시간 추세의 기울기임; 추정 기간은 가장 긴 경우 1910-42년이지만 임금 데이터 결락 때문에 이 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서 증가율을 구한 도시와 직종이 있음;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부산의 연공 실질 임금 증가율 1.4%와 청진의 어부 실질 임금 증가율 0.9%는 11% 수준에서 유의미.

<표 4>는 8대 도시에서의 8개 비숙련 직종의 실질 임금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어부 임금이, 그리고 청진에서는 남자 농업 노동자 임금이 관측되지 않았으므로 62(=8*8-2)개 경우에 대한 증가율이 나와 있다. 이 증가율들은 결락치가 있는 경우 이를 내삽이나 외삽을 통해 보완하지 않고 추정한 것이다. 증가율 추정 결과를 보면 62개 경우 중 유의미한 양의 시간 추세를 가진 경우는 33개, 유의미한 음의 시간 추세를 가진 경우는 1개, 나머지 28개 경우는 유의미한 시간 추세가 검증되지 않았다. 즉 절반 이상의 경우 실질 임금은 상승하고 있었으며 실질 임금이 정체한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우선 도시별로 보면 평양에서는 8개 직종 중 6개 직종에서, 신의주와 대구에서는 5개 직종에서, 서울, 부산, 원산에서는 4개 직종에서, 청진에서는 3개 직종에서, 그리고 목포에서는 2개 직종에서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 실질 임금이 증가한 경우

의 수를 세어 보면 남한과 북한 도시에서 각각 15개와 18개로서 이는 식민지기에 남한에서 보다 북한에서 일인당 소득과 실질 임금이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앞서의 주장과 정합적이다.¹⁸⁾

직종별로 보면 8대 도시 중 7개 도시에서 鳶工의 실질 임금이, 5개 도시에서 하녀, 토공, 하역부, 의 실질 임금이 상승 추세를 보였던 데 비해 일반 노동자와 어부 실질 임금은 4개 도시에서, 지계꾼 실질 임금은 2개 도시에서, 그리고 남자 농업 노동자 실질 임금은 1개 도시에서만 상승했다. 이 같은 직종별 실질 임금 증가율의 차이는 앞서 <표 1>과 <표 2>에서 보았던 임금이 높은 직종일수록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형태로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목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도시에서 실질 임금이 상승했던 鳶工은 임금이 가장 높았던 직종인데 비해 부산과 평양에서만 실질 임금이 상승했던 지계꾼은 임금이 가장 낮았던 직종이었다.

『年報』에서는 1935년까지만 농업 노동자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표 3>에 제시된 농업 노동자 임금 증가율을 1942년까지의 시기에 대해 계산한 다른 직종 임금 증가율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표 1>에서 보았듯이 그 수준이 가장 낮았던 농업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던 것은 오로지 서울에서였을 뿐 아니라 신의주에서는 하락했다는 사실은 임금 수준이 낮은 직종에서 임금이 천천히 증가했다는 패턴과 잘 들어 맞는다. 이는 8대 도시에 거주했던 남자 농업 노동자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직종이 아니며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종에 가까웠던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8대 도시 남자 농업 노동자의 실질 임금 정체는 식민지기 토지 없는 농민들의 실질 소득이 정체했음을 시사하는 것일까? 여기서 토지 없는 농민들이란 소작 농민들과 농촌의 농업 노동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실질 소득 추세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왜냐하면 식민지기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비농업 부문 종사자 비중이 증가했지만 노동자의 대부분은 농촌에 거주하는 소작농과 농업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토지를 갖지 않은 농민들이 노동자와 소작농이라는 두 직업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것을 가로 막는 어떤 장벽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 두 부류의 농민들의 실질 소득의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8대 도시 남자 농업 노동자

18) 이 문단과 그 전 문단의 서술은 11%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시간 추세를 가진 부산의 연공 실질 임금 (증가율 1.4%)와 청진의 어부 실질 임금 (증가율 0.9%)를 포함한 것이다.

의 실질 임금과는 달리 농촌에 거주하던 소작농이나 농업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상승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농촌의 노동자의 명목 임금 관측치는 예천과 서천에서 나온 것이 전부인데 이를 허수열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 실질 임금 지수는 식민지기에 상승 추세를 보였다(이우연·차명수(2007: 49, 〈그림 2〉)). 둘째, 식민지기의 소작제도 아래서는 소출의 절반이 지주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소작농의 소득이 되었다. 따라서 토지 없는 소작농의 소득 증가율은 토지생산성 증가율과 일인당 경작 면적 증가율을 합한 것과 같을 것이다. 우선 토지 생산성 증가율은 (농업 부가가치율이 식민지기에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서) 농업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 1.8%에서 경작지 확대 속도 0.22%를 뺀 1.58%와 같다. 다음으로 전체 경작지가 연 0.22%씩 확대되었고 농업 부문 노동력 투입이 1917-40년간 연 0.35% 씩 증가했으므로 일인당 경작지 증가율은 -0.13% ($=0.22\%-0.35\%$)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도출되는 소작 농가의 소득 증가율은 1.45% ($=1.58\%-0.13\%$)이다.¹⁹⁾ 이 증가율은 도출하는데 사용된 집계 통계들은 신뢰도가 아주 높은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특히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는 1918년 이전의 수치들은 많은 경우 후방 투사(backward projection)를 통해 도출한 것이므로 1.45%라는 소작농 소득 증가율의 오차 마진은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적어도 일인당 경작 면적 감소 속도가 토지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더 빨라서 소작농 소득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갔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농촌에 거주했던 농업 노동자와 소작농의 소득이 증가했다면 농촌과 도시 사이에 노동력 이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8대 도시의 남자 농업 노동자 실질 임금이 정체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대도시 농업 노동자와 도농간 노동력 이동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없이는 대답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이지만 두 가지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구조변화 과정에서 노동력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로부터 끌어 당기는 힘(pull)과 농촌으로부터 밀어 내는 힘(push)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1930년대 공업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pull보다는 push가 노동력 재배치를 가져온 보다 중요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개항기에 사망력 변천이 시작되어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19) 여기서 사용한 농업 부문 노동력 투입 증가율은 김낙년(2009)의 추정치이다.

시작했는데 도시에 비해 농촌의 출산력이 현저히 높았으므로 생활수준을 압박하는 인구 증가라는 힘이 농촌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의 농업 공황은 많은 농민들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도시로 내 모는 원인이 되었다(차명수, 1991). 이런 push 요인들에 비해 1930년대 들어 공업화가 시작되기 까지는 비 농업 부문의 성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했고 따라서 pull은 약했다. 이와 같이 주로 push 요인에 의해 농업으로부터 비농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경우 농업은 질이 낮은 - 게으르거나 또는 체력이 약하거나 또는 농업 생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 노동자부터 밀어 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노동력의 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할 것이고 이것이 농촌의 실질 임금을 상승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농촌을 떠난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가장 취업하기 쉬운 직종이 익숙해 있는 농업 노동이라는 점이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농촌에서 밀려 나온 노동자들은 일단 농업 노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도시 환경에 익숙해 지면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찾아나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배출된 노동력이 처음으로 쌓이는 도시의 농업 노동 부문의 임금이 정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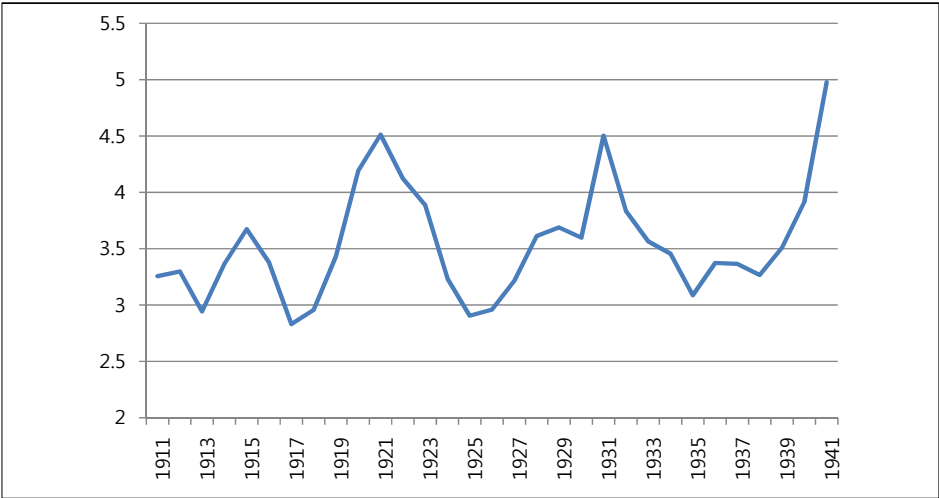
〈표 3〉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질 임금이 증가 추세를 따랐던 경우가 절반을 넘으므로 이로부터 우리는 8대 도시에서 비숙련 실질 임금은 상승하는 추세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그림 6〉을 그리는 데 사용한) 8대 도시의 비숙련 임금 - 즉 관측치 결락이 비교적 적은 4개 비숙련 직종 임금의 도시별 가중 평균 - 의 도시간 가중 평균을 계산해서 그 추세를 보기로 한다.

〈그림 7〉은 1930년 8대 도시 인구가 8대 도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해서 8대 도시 전체의 비숙련 실질 임금 지수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 실질 임금 지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이 지수에 자연대수를 취해 시간에 대해 회귀하면 1911-41년간 연 0.45%의 증가율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계수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으며 이것이 유의미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의 수준을 11%로 낮추어야 한다.²⁰⁾ 이는 Cha & Lee (2008)이나 김낙년·박기주(2010) 보다는 尾高(1975)와 허수열(1981)의 결론에 가까운 것이며 특히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시간 추세를 포함하고 있는 尾高(1975)의 추세와

20) 0.45%의 증가율은 1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유사하다.

〈그림 7〉 8대 도시의 평균 비숙련 실질 임금 추이



주: 일반 노동자, 하역부, 토공, 지계꾼의 평균 임금.

자료: 본문 참조.

이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Cha & Lee(2008)이나 김낙년·박기주(2010)는 尾高(1975), 허수열(1981) 그리고 이 연구에서와는 달리 8대 도시뿐 아니라 16개 중소 도시까지 포함한 평균 임금을 추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임금 증가율 추계치 차이를 가져 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²¹⁾ 이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직종간 그리고 8대 도시간에 상당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듯이 8대 도시와 중소 도시 사이에도 무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중소 도시 임금을 추계하지 않았지만 식민지기 동안 중소 도시 인구가 8대 도시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중소 도시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말해 준다. 즉 중소도시의 노동자들은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로 이주해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미 제Ⅱ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Cha & Lee(2008)이나 김낙년·박기주(2010)은 『年報』의 임금

21) 허수열(1981)은 자신의 추계가 8대 도시의 임금 추계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가 사용했다고 서술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려면 8대 도시 임금만을 사용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통계의 도시간 직종간 분포의 변화가 추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았다. Cha & Lee(2008)는 도시나 직종 더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헤도닉 회귀분석을 통해 임금을 추정했으며 김낙년·박기주(2010)는 『年報』의 임금 관측치의 도시간 직종간 분포 상황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들을 가중치로 사용했던 것이다. Cha & Lee(2008)의 문제는 도시와 직종 더미를 포함시켜 추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측치 분포 비율은 김낙년·박기주(2010)가 사용한 방법의 불가결한 일부라고 생각되므로 임금 통계의 도시간 직종간 분포의 변화가 추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어렵다. 김낙년·박기주(2010)의 방법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물가지수 추정 방식을 임금 추계에 적용한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이 논문의 보론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림 7〉에 제시된 추계치가 따르고 있는 양의 시간 추세가 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지만 이것을 이유로 8대 도시의 식민지기 비숙련 노동자 실질 임금이 정체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그림 7〉의 전국 비숙련 실질 임금 지수에는 일반 노동자, 하역부, 토공, 지게꾼 임금만이 반영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던 하녀, 어부, 연공의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이 지수는 고정된 노동력 분포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사용해서 도출된 것이지만 식민지기에 임금 증가 속도가 빨랐던 북한 도시들의 인구 비중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앞의 〈표 4〉에서 본 것처럼 64개의 직종별 도시별 임금 중 절반 이상의 경우 실질 임금은 상승하고 있었으며 실질 임금이 정체한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VI.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은 식민지기 비숙련 임금의 8개 직종 간, 그리고 8대 도시 간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또 이 격차는 어떻게 바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식민지 시대 이래 통상 “비숙련” 직종으로 분류되어 온 직종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임금 격차가 있었으며, 임금이 높은 비숙련 직종일수록 임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비숙련 노동

자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은 확대 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지계꾼과 하역 노동자의 8대 도시간 명목 및 실질 임금 격차는 좁혀졌지만 다른 직종의 경우 도시간 임금 격차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셋째, 실질 임금이 높은 도시에 비해 낮은 도시에서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에 걸친 농업공황, 그리고 1930년대의 공업화의 영향으로 도시간 비숙련 실질 임금 격차가 좁혀지는 않았다. 넷째, 식민지기에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가장 높았던 곳은 청진이며 가장 낮았던 곳은 목포인데 식민지기를 통해 남한에 비해 실질 임금 상승 속도가 빨랐던 북한 도시들의 노동자 생활수준 순위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8대 도시의 8개 비숙련 직종의 실질 임금은 절반 이상의 경우 유의미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하락 추세를 보인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단 하나의 경우 하락 추세를 보였으므로 식민지기 비숙련 노동자 실질 임금은 상승 추세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식민지기 임금 추계는 숙련과 비숙련 노동자를 구분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요구되는 능력이나 작업의 위험도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비숙련 노동으로 구분되어 왔던 직종들 사이에서도 비숙련과 숙련 직종 사이에서 관찰되는 것과 다르지 않는 임금 격차가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숙련 임금에 비해 숙련 임금이 더 빠르게 올랐던 것처럼 비숙련 직종 중에서도 임금이 높은 직종에서 임금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 이는 임금을 숙련과 비숙련 직종으로 나누어 추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年報』의 임금 통계를 이용한 연구들은 이 자료가 도시에 존재했던 일부 직종의 임금을 관측한 결과라는 사실을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은 가운데 이로부터 전국 평균 임금 수준과 추세를 추정하려 한 경향이 있었다. 이 논문은 직종간 지역간 상당한 임금 격차가 있었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年報』의 임금 통계를 기반으로 추계할 수 있는 것은 도시 임금, 특히 8대 도시의 임금이지 전체 경제의 임금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민지기 전국 평균 임금을 추계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국 평균 임금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年報』가 제공하고 있지 않은 직종과 지역의 임금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이 농촌 임금과 공장 임금이라고 생각된다. 尾高(1975)의 “제조업 임금”은 『年報』의 임금 통계 중 일부 숙련 직종 임금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라는 허수

열(1981)의 지적은 식민지기에 아직 비중이 크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중요해져 가는 공장 노동자의 임금 정보를 『年報』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年報』에는 농업 노동자 임금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농업노동자들로써 제V장에서 지정한 것처럼 이들의 임금소득 수준과 추세는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 노동자들의 그것과 상당히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1. 김낙년, “한국의 국민계정, 1911-2006,”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07-6, 2007.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eon, “National Accounts of Korea, 1911-2006,”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007-6, 2007.
2. _____, “일제시기 우리나라 GDP의 도별분할,” 『경제사학』, 45, 2008, pp.3-43.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eon, “Provincial GDP in Colonial Korea,” *Kyungje Sahak*, 45, 2008, pp.3-43.
3. 김낙년·박기주, “해방 전후 (1936-56년) 서울의 물가와 임금,” 『경제사학』, 42, 2007, pp.71-105.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eon and Kijoo Park, “Prices and Wages in Seoul, 1936-56,” *Kyungje Sahak*, 42, 2007, pp.71-105.
4. _____, “해방전(1906-43) 조선의 임금 재론,” 『경제사학』, 49, 2010, pp.3-37.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eon and Kijoo Park, “Colonial Wages Revisited, 1906-43,” *Kyungje Sahak*, 49, 2010, pp.3-37.
5. 박기주·김낙년, “해방전(1907-1939) 소비자 물가지수 추계,”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10-5, 2010.
(Translated in English) Park, Kijoo and, Nak Nyeon Kim, “Consumer Price Index for Colonial Korea, 1907-39,”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010-5, 2010.
6. 이우연, “농촌임금의 추이: 1853-1910,” 『경제사학』, 29, 2000, pp.39-71.
(Translated in English) Lee, Wooyoun, “Trend of Agricultural Wages in Korea, 1853-1910,” *Kyungje Sahak*, 29, 2000, pp.39-71.
7. 이우연·차명수, “식민지 조선의 임금 수준과 구조,” 『경제사학』, 43, 2007, pp.41-66.
(Translated in English) Lee, Wooyoun and Myung Soo Cha, “Level and Structure of Wages in Colonial Korea,” *Kyungje Sahak*, 43, 2007, pp.41-66.

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年.
(Translated in English) *Statistical Yearbook of Colonial Korea*, various years.
9. 허수열, “일제하 실질임금 (變動) 추계 (推計),” 『경제사학』, 5, 1981, pp. 213-46.
(Translated in English) Huh, Suyeol, “Estimation of Real Wages in Colonial Korea,” *Kyungje Sahak*, 5, 1981, pp. 213-46
10. 溝口敏行・梅村又次編, 『舊植民地經濟統計: 推計と分析』,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8.
(Translated in English) Mizoguchi, Toshiyuki and Mataji Umemura, *Economic Statistics of Japanese Colonies*, Tokyo: Toyokeizaishimposha, 1998.
11. 尾高煌之助, “日帝統治下における朝鮮の勞動經濟,” 『經濟研究』, 26-2, 1975, pp. 145-158.
(Translated in English) Odaka, Konosuke, “Labor Economy of Colonial Korea,” *Keizai Kenkyu*, 26-2, 1975, pp. 145-158.
12. 一橋大學經濟研究所, “日帝統治下における朝鮮の雇用と賃金,” 『一橋大學經濟研究所加工統計シリーズ 7』, 一橋大學, 1975.
(Translated in English)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Employment and Wages in Colonial Korea,” *the 7th Statistical Series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1975.
13. Allen, Rober, “Pessimism Preserved: Real Wages in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Oxford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2007, p. 314.
14. Barro, Robert J. and Xavier Sala-i-Martin, *Economic Growth*, 2nd edi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2004.
15. Boyer, G. and Hatton, Timothy, “Regional Labor Market Integration in England and Wales, 1850-1913,” in Grantham, George and Mary MacKinnon (eds.) *Labor Market Evolution* (London: Routledge), 1994.
16. Cha, Myung Soo, “Colonial Origins of Korea’s Market Economy,” in John Latham and Heita Kawakatsu, eds., *Asia Pacific Dynamism, 1550-2000*, London: Routledge, 2000.
17. _____, “Industrial Revoluti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007-7, 2007.
18. Cha, Myung Soo and Nak Nyeon Kim, “Korea’s First Industrial Revolution, 1911-40,”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006-3, 2006.
19. Cha, Myung Soo and Woo Youn Lee, “Living Standards and Income Distribution in Korea’s First Industrial Revolution, 1910-42,”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008-2, 2008.
20. Clark, Gregory, “The Conditions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1209-2004,”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3, 2005, pp. 1307-1340.
21. Collins, William J., “Labor Mobility, Market Integration, and Wage Convergence in Late 19th Century India,”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6, 1999, pp. 246-277.
22. De la Croix, D. and M. Doepke, “Inequality and Growth: Why Differential Fertility

- Matter," *American Economic Review*, 93-4, 2003, pp.1091-1113.
23. Goldin, Claudia and Robert A. Margo, "Wages, Prices, and Labor Markets before the Civil War," in Goldin, C. and H. Rockoff, eds., *Strategic Factors in Nineteenth Century 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24. Kwon, Tai Hwan, *Demography of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25. Lindert, Peter H., and Jeffrey G. Williamson, "English Worker's Living Standard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 New Look," *Economic History Review*, 36, 1983, pp.1-25.
26. Margo, Robert A., *Wages and Labor Markets in the United States, 1820-186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7. Phelps-Brown, Henry and Sheila V. Hopkins, "Seven Centuries of Building Wages," *Economica*, 22-87, 1955, pp.195-206.
28. Yan, Se, "Real Wages and Skill Premia in China, 1858-1936," Unpublished Manuscript, 2007.

보론: 평균 임금 증가율을 직종별·도시별 임금 증가율의 가중평균으로 구하는 것은 합당한가?

김낙년·박기주(2010)는 평균 임금 증가율을 직종별·도시별 임금 증가율의 가중평균을 내어 도출했는데 이 보론의 목적은 이것이 경제 전체의 임금 증가율을 도출하는 합당한 방법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준년의 임금 수준을 계산하는 식과 임금 증가율을 계산하는 산식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추계 방법에 수학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직종별 임금(W_i) 관측치가 있고 이로부터 평균 임금(W)을 추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고정가중치를 사용한다고 하면 김낙년·박기주(2010)의 방법은 경제전체의 명목 임금 증가율(g_W)을 개별 직종 임금증가율(g_{W_i})에 고정가중치(φ_i)를 적용해서 구하는 것이며 이는 식 (2)로 표시할 수 있다.

$$g_W = \sum_i \varphi_i \cdot g_{W_i} \tag{2}$$

여기서 고정 가중치가 초기의 직종간 노동력 분포를 나타낸다면 g_W 는 라스파이레스 명목 임금 지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말기의 직종간 노동력 분포를 나타낸다면 g_W 는 파셰 명목임금 지수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식 (2)에 상응하는 어떤 시점 t 에서의 평균 명목 임금 수준(W_t)과 직종별 명목 임금 수준(W_{it})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은 다음의 식 (3)이다.

$$W_t = \prod_i W_{it}^{\varphi_i} \tag{3}$$

즉 식 (2)는 식 (3)에 자연 대수를 취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얻을 수 있는 식인데 이 같은 식 (2)와 (3) 사이의 수학적 관계는 만일 개별 직종 임금의 명목 임금 증가율의 가중 평균을 내어 전체 명목 임금 증가율을 구했다면 기준 년도의 명목 임금 수준은 개별 직종 임금의 단순 가중 평균이 아니라 기하 가중 평균으로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²²⁾

김낙년·박기주(2010)는 명목 임금 지수를 직종별 명목 임금 증가율에 고정 가중

치를 적용한 가중 평균으로서가 아니라 연쇄 라스파이레스와 연쇄 파세 지수의 기하 평균으로서 도출했다. 이는 기준년의 명목 임금 수준이 (김낙년·박기주(2010)가 구했듯이) 개별 직종 임금의 단순 평균도 아니고, (식 (3)과 같은) 개별 직종 임금의 기하 평균도 아니며, 기준년의 개별 직종 임금(W_{is})의 기하 평균(W_s)의 상당히 복잡한 함수 - $f(W_s)$ - 로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추계 방법의 수학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f(W_s)$ 는 간단히 도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이 함수를 도출하고 여기에 W_s 를 대입해서 기준년의 평균 명목 임금을 계산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왜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임금을 도출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즉 어떤 해의 평균 임금 수준이란 개별 직종 또는 도시 임금의 단순 가중 평균으로 구하는 것이 납득하기 쉬운 것이다. 김낙년·박기주(2010)가 채택한 절차는 방법은 기준 년도의 물가 수준을 구하는 단계에서 수학적 일관성과 직관적 타당성 중 양자 택일을 요구하는데 김낙년·박기주(2010)는 전자 대신에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일관성은 있으면 아름답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고정 가중치를 적용해 평균 임금을 산출하는 경우로 돌아가 보자. 이 때 만일 한편으로는 명목 임금 증가율을 개별 직종 임금 증가율의 가중평균을 내어 도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년의 명목 임금 수준을 단순가중 평균을 내어 구한다면 기준년이 바뀔에 따라 명목 임금 추계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도시 별로 임금을 추계하는 경우 기준년이 바뀔에 따라 도시간 임금격차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평균 명목 임금 수준을 기하 가중평균으로 구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²³⁾

개별 가격의 증가율의 가중 평균을 구해 전체 가격의 증가율을 구하는 방식을 노동 서비스가 아니라 재화 가격 지수 계산에 적용했을 때는 수학적 일관성과 직관적 타당성 사이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지역별 물가 지수를 구하는 경

22) 물가지수를 개별 물가 증가율의 가중평균으로 도출하는 경우 기준 년도의 물가 수준은 개별 물가의 기하평균으로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Goldin and Margo (1992), Margo (2000), Clark (2005)을 보라.

23) 이는 연속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서술이다. 이산적 변화의 경우 기준 년의 명목 임금 수준을 기하평균으로 구하면 기준년이 바뀔에 따라 명목 임금 추계치가 변화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그리고 증가율이 아주 크지 않다면 그 차이는 실용적으로 무시할 만 하다.

우가 아니라면) 기준 년도의 물가 수준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기준 년의 값을 1이나 100과 같은 임의의 숫자로 놓고 도출한 지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물가 수준을 계산해서 지역간 물가 수준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경우 기준년 물가 수준을 구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때 기준년 물가 수준을 기하 가중 평균으로 구하는 것이 수학적 일관성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실용적 관점에서도 단순 가중 평균에 비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단순 가중 평균으로 구하면 각 재화의 가격을 어떤 단위로 표시하느냐에 따라 물가 수준의 지역간 비율은 달라지지만 기하 가중 평균으로 구하면 지역간 비율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²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물가 지수는 개별 물가 증가율의 가중 평균으로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평균 임금은 개별 도시나 직종 임금 수준의 가중 평균으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임금 지수 도출은 단위가 동일한 (또는 동일한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개별 관측치들 - 즉 서로 다른 지역 또는 직종에서의 시간당 혹은 하루 임금 등 - 를 집계하는 작업인데 비해 물가 지수는 단위가 다른 개별 관측치들 - 신발 한 켤레 가격, 쌀 한 가마 가격, 맥주 한 병 가격 등 - 을 집계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라스파이레스나 파셰 물가 지수와는 달리 라스파이레스나 파셰 임금 지수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임금과 물가 집계 사이에 이 같은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말해 준다.

24) 예를 들어 X와 Y 두 재화가 있고 그 한 단위 가격이 각각 서울에서 100원과 50원, 대구에서 90원과 40원이라고 하자. 이 두 재화에 각각 0.6와 0.4를 적용해서 기하 가중평균을 구해 물가 수준을 계산하면 서울은 75.8, 대구는 65.1이며 이는 서울 물가가 대구에 비해 16.5% 높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X재 10 단위 가격을 이용해 두 도시의 물가 수준을 구하면 서울이 301.7 대구가 259.0으로 바뀌지만 서울 물가가 대구 물가에 비해 16.5% 높다는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평균 물가를 일반 가중 평균으로 구하면 물가를 측정하는 단위가 바뀔에 따라 도시 간 물가 수준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수치 예를 가지고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부표〉 8대 도시 비숙련 노동자 명목 및 실질 임금

명목임금 (엔/日)

	서울	목포	부산	대구	원산	청진	신의주	평양
1910	0.4511	0.37375	0.445	0.4	0.436	0.602	0.404	0.47313
1911	0.368	0.277	0.4085	0.313	0.5184	0.5025	0.396	0.471
1912	0.4453	0.348	0.393	0.3545	0.5247	0.552	0.617	0.411
1913	0.3846	0.35	0.412	0.3615	0.531	0.6705	0.424	0.4338
1914	0.3929	0.414	0.36	0.3915	0.51024	0.6305	0.42	0.406
1915	0.4127	0.426	0.36	0.3915	0.47498	0.6305	0.396	0.3892
1916	0.376	0.416	0.444	0.3575	0.42972	0.6365	0.398	0.3927
1917	0.3879	0.4639	0.4967	0.3992	0.47386	0.7564	0.4609	0.4421
1918	0.6233	0.6932	0.8084	0.6901	0.6227	0.9337	0.7009	0.7655
1919	1.1105	1.2923	1.0643	1.1542	1.2325	1.3526	0.902	0.9863
1920	1.3898	1.3375	1.3821	1.7122	1.2946	1.8767	1.117	0.9343
1921	1.0127	0.8436	1.1101	1.3045	0.906	1.7113	0.6218	1.0266
1922	1.143	0.739	1.037	0.9639	0.9216	1.533	0.6962	1.022
1923	0.9438	0.96	1.036	0.936	0.8767	1.4574	0.7721	0.9535
1924	0.8833	0.96	1.006	0.8485	0.8679	1.0636	0.718	0.93399
1925	0.8328	0.93445	0.9482	0.8525	0.7317	0.9365	0.9045	0.90688
1926	0.8001	0.8357	0.8955	0.799	0.8578	1.04	0.8865	0.678
1927	0.817	0.842	0.8535	0.8636	0.934	1.04	0.7583	0.7303
1928	0.8102	0.842	0.9529	0.818	0.9492	1.04	0.7168	0.94
1929	0.831	0.842	0.9466	0.7704	0.97	1.04	0.838	0.933
1930	0.7115	0.714	0.7666	0.6395	0.95	0.9455	0.6622	0.7573
1931	0.651	0.5352	0.705	0.5888	0.654	0.903	0.7816	0.707
1932	0.651	0.5037	0.713	0.5939	0.812	0.8007	0.592	0.707
1933	0.6434	0.53205	0.766	0.6193	0.6525	0.7802	0.5912	0.7224
1934	0.643	0.5872	0.6987	0.6393	0.6326	0.8259	0.598	0.8279
1935	0.6706	0.575	0.7145	0.6445	0.8486	0.8672	0.6502	0.8038
1936	0.7437	0.594	0.7713	0.7349	0.8745	0.8024	0.703	0.9043
1937	0.7823	0.7888	0.7385	0.7885	0.8878	1.0832	0.824	0.856
1938	0.8206	0.856	0.8531	0.7757	0.8933	1.1006	1.2033	0.8764
1939	0.8923	0.956	1.0857	0.9549	0.947	1.5447	2.09	1.2777

주: 일반노동자, 지게꾼, 하역부, 토공 임금의 가중평균.

실질임금 (지수)

	서울	목포	부산	대구	원산	청진	신의주	평양
1910	4.09378	3.41608	4.78077	3.44943	3.54389	4.93796	4.40359	4.55167
1911	2.87196	2.11434	3.73323	2.32144	3.98971	3.75206	3.80031	4.09154
1912	3.38801	2.55035	3.33644	2.50722	3.55586	3.64039	4.76046	3.20173
1913	2.61734	2.44719	3.23317	2.37817	3.50757	4.33136	3.31007	3.34352
1914	3.17707	3.34841	3.12999	3.0045	3.97633	4.47881	3.65931	3.69793
1917	2.58812	3.17525	3.3016	2.23456	3.13084	4.39764	3.22279	2.79508
1918	2.64377	2.73817	3.26888	2.67337	2.7027	3.83001	3.44814	3.3876
1919	3.49805	4.03269	3.05619	3.30247	4.14928	4.13115	3.289	3.2134
1920	4.33977	4.16264	4.00783	4.84627	4.24929	5.63606	4.09724	3.32665
1921	4.28857	3.32725	4.43351	5.02696	3.90931	7.44256	2.90388	4.94371
1922	4.51481	2.69422	3.54351	3.32379	3.51671	6.38947	3.15446	4.41651
1923	3.78067	3.88505	3.83065	3.36244	3.77419	6.14197	3.6308	4.10869
1925	2.70627	3.02684	2.98389	2.63038	2.55232	3.33176	3.51082	3.28221
1926	2.84035	2.9009	3.14699	2.74269	3.20138	3.8177	3.68455	2.80171
1927	3.16102	3.1726	3.33221	3.06599	3.73868	4.02948	3.19948	3.03538
1928	3.25682	3.26405	3.88205	3.22911	3.84144	4.00902	3.17788	4.44538
1929	3.37365	3.29672	3.84451	2.91482	4.14321	4.37816	3.71828	4.52663
1930	3.36159	3.23357	3.53405	2.92236	4.65764	4.44487	3.30957	4.23846
1931	4.28892	3.82931	4.45078	3.7575	4.3556	5.59176	5.17591	5.24224
1932	3.57448	2.82761	3.9087	3.11828	4.82737	4.93255	3.39693	4.58918
1933	3.33866	2.78829	3.85169	3.10696	3.48763	4.06254	3.12877	4.30495
1934	3.23871	2.83537	3.34327	3.02906	3.29006	4.14456	3.03607	4.40308
1935	2.89154	2.50947	2.95805	2.67368	3.83736	3.57584	2.87235	3.71287
1936	3.01633	2.4565	3.1416	3.22236	4.1353	3.80794	3.35274	4.29295
1937	3.04792	2.95771	2.91671	3.13076	3.81241	4.6191	3.8315	4.09959
1938	2.94764	3.0298	3.21964	2.63853	3.44262	4.15391	4.95051	3.76791
1939	2.60425	3.06451	3.37116	2.94613	3.3062	5.2097	7.66878	4.66356

주: 일반노동자, 지게꾼, 하역부, 토공 임금의 가중평균. 명목 임금을 실질 임금으로 나누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것은 이렇게 얻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1935년 서울의 값이 100이 되도록 조정한 것임.

Occupational and Regional Wage Gap in Colonial Korea, 1910-42

Myung Soo Cha^{*}

Abstract

This article estimates wages of unskilled occupations and consumer price indices by city in colonial Korea. Both nominal and real wages tended to rise faster in higher-paid occupations, while real wages were likely to grow faster in cities where lower living standards prevailed initially. Primary school enrollment accelerated wage growth, but workers suffered slower improvement in real incomes in cities located in provinces with higher land tenancy ratio. Real wage gaps among cities were not being closed as a matter of trend, particularly due to the interwar agricultural depression and the industrialization drive in the 1930s. Unskilled real wages for different occupations in different cities were more likely to rise than fall.

Key Words: wage, consumer prices, colonial Korea, convergence

Received: Dec. 28, 2010. Revised: Jan. 7, 2011. Accepted: March 8, 2011.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and Finance, Yeungnam University, 214-1 Dae-dong, Kyeongsan-si, Kyeongsangbuk-do 712-749, South Korea, Phone: +82-53-810-2714, e-mail: mscha@ynu.ac.kr